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 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2022년 “제59회 본당의 날”

- 기념 미사
 - 10월 16일(일), 교중 미사(10:30)
- 행사
 - 일시 및 장소 : 교중 미사 후 본당 주차장
 - 내 용 : 구역 대항 윷놀이 / 행운권 추첨 등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8월 31일 현재 ₩12,870,000 납부되었습니다.

◎ 알 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10월 2일)는 군인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10월 1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은총
 1.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은총을 받음.
 2. 지옥에 떨어진 영혼 구원(파티마 성모님 말씀).
 3. 전쟁 막고 세계 평화 가져옴.
 4. 전대사 은혜 (고해성사, 영성체, 보속행위).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성체분배자회	9월 25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 조배실
성모성심회	10월 1일(토), 20시	강 당
위령봉사회	10월 2일(일), 11시 40분	강 당
M.E.	10월 2일(일), 11시 50분	6교실

◎ 고3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 접수기간 : 9/25(일) ~ 10/7(금)
- 첫 모임 : 10/8(토) 10:30, 6교실
- 접수방법 : 문자 접수(신청자/수험생 이름)만 가능합니다. (010-4222-0524)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제대회 회원 모집 및 월례 모임

- 제대 및 꽃꽂이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을 모집합니다.
- 월례 모임 : 매월 첫 화요일 10시 30분, 2교실
- 회 장 : 마정순 이레네 010-6286-1389

◎ 다음 주일(10/2)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0월 예정	청 소	2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9월 14일 ~ 9월 20일)

• 교 무 금		7,000,000원
• 주일헌금		4,607,000원
• 헌미헌금 2차 헌금		1,968,800원
	김인아 5만원 황정후10만원 오숙희10만원	
• 감사헌금	김도현 5만원 전영미 5만원 신기자10만원	
	손정호 5만원 이점임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9/25	권태희	조흥환	김진수	장익근	정연희
10/2	황원선	조흥환	최상림	장익근	구민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9/25	박용환	이화봉	최석준	이운영	오광운
10/2	박형순	이운영	박용환	김인기	장인홍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12. 어떤 것이 계속해서 사회의 순기능에 이바지한다면, 이는 아마도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사회의 실재 안에는 그 내재적 본질에 따라, 자체적인 발전과 생존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기본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결정적인 요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요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것들은 아닐지라도, 대화에 힘입어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회생활 그 자체를 위하여 어떤 규범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규범들이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외적 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편의, 합의, 객관적 진리의 실재, 이 세 가지를 대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통하여 어떤 문제의 핵심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는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13.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의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면, 이는 그러한 존엄을 우리가 지어 내거나 상상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물질적 대상과 상황들보다 더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문화적 변화와 무관하게 인간 본성에 속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 인간은 동일한 불가침의 존엄을 지니고 있고, 그 누구도 자신이 상황에 따라 이러한 확신을 부정하거나 이를 거슬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지성은 성찰과 경험과 대화를 통하여 사물들의 실재를 통찰할 수 있고, 그 실재 안에는 이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 도덕적 요구들의 기초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14. 불가치론자들은 이 기초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적이고 타협 불가한 윤리 원칙들에 견고하고 확고한 보편 타당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재앙들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윤리 원칙들의 원천인 인간 본성을 창조해 주셨고,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그러한 원칙들에 견고한 기초를 부여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윤리적 불변주의를 조장하거나 어떤 도덕 체계의 강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유효한 기본 도덕 원칙들은 다양한 실천 규범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대화를 위한 여지가 있습니다.